

# 지스트 오룡아트홀,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 운영

- '최순임 작가 초대전' 개최...입체 설치 작품, 평면 회화 등 총 49점의 작품 전시
- 5인 이상 단체 관람객 대상 사전 예약 통해 작가 설명 들으며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제2회 초대전 <작가와의 만남> 현장에서 지스트 학사과정 신입생들이 최순임 작가에게 작품 설명을 듣고 있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시민에게 문화와 예술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문을 연 「오룡아트홀」이 관람객과 한층 더 가까워지기 위해 단체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5인 이상의 단체 관람객들이 사전 예약을 통해 <작가와의 만남>을 신청하면 전시회를 연 작가에게 직접 설명을 들으며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개관 이후 제1회 초대전으로 서양화가 김혁정 작가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오룡아트홀」은 현재 두 번째 초대전으로 최순임 작가의 <BON VOYAGE - 삶의 여행을 응원하는 인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스트 학사과정 신입생 200여 명을 초청해 첫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하고 캠퍼스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문화와 예술을 접하며 작가와 직접 소통함으로써 사고의 확장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순임 작가는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하고 광주시립미술관 국제 레지던시, 비엔날레 특별전, 중국 국제 세라믹 엑스포에 참여한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인으로, 입체 설치 작품과 평면 회화 등 총 49점의 작품을 오는 4월 10일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 지스트 오룡아트홀 제2회 초대전 포스터

최순임 작가는 "「오룡아트홀」개관을 준비할 때부터 참여해 직접 작품을 전시하기까지 좋은 기회를 갖게 돼 매우 뜻깊고 기쁘다"며 "「오룡아트홀」이 지역민을 위한 대표적인 문화 향유의 공간으로서 더 많은 분께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제2회 초대전 전시 현장

「오룡아트홀」은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개관 취지에 맞게 모두를 위한 문화 향유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전시할 계획이며, **구축 예정인 「오룡아트홀」 홈페이지를 통해 전시회와 전시 작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룡아트홀」은 **평일과 토요일(일요일 휴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되며, 내·외부인 제한 없이 누구나 오룡관에 들어와 1~2층에 전시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 관람 문의: 062-715-2628 (GIST아카데미)